

우리 몸의 기생충관리

# 가을은 구충의 계절



■ 최 원 영

우리 나라는 옛날부터 농경국가로서 농민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의 대부분이 위생지식이 낮았고 또 인분을 비료로 즐겨 사용하여왔던 관계로 토양매개성기생충 즉, 회충을 비롯하여 십이지장충, 편충 및 동양모양선충 등이 만연하는데 매우 적합한 환경을 가지고 있었다.

이로 인하여 기생충왕국이라는 달갑지 않은 별명을 얻었고 비공식집계로서 국

## 해인초를 끓인 물을 한 컵씩 먹던 기억...

민의 90% 이상이 기생충감염자라고 알려져 왔다.

이때문에 기생충의 한 가지 혹은 두 가지 정도는 당연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여겨져왔고 그것이 상식처럼 알려졌다.

일제시대에 있어서도 기생충관리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관심이 있었던 것 같다. 그 증거로서 국민학생에게 때때로 「마꾸닝」이라는 체리모양의 구충약과 때로는 해인초를 끓인 물을 한 컵씩 복용시켰던 기억이 있다. 그러나 해방과 6·25동란을 겪으면서 불결한 환경은 기생충을 더욱 만연시켰으리라는 것은 쉽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차츰 사회적 안전과 경제성장, 그리고 공업화에 따르는 환경의 변화와 아울러 보건사회부와 한국기생충박멸협회의 체계적인 기생충관리사업은 일차적



으로 회충에 대하여 집중적인 대책을 수립하기에 이르러 학생집단에 대하여 1960년대말부터 15년간 2회의 집단검사와 양성자에 대한 투약을 실시하여 왔다.

그 결과로 1969년에 55.4%의 회충란양성율이 1975년에는 38.2%, 그리고 1981년에는 10.2%라는 극적인 감소를 보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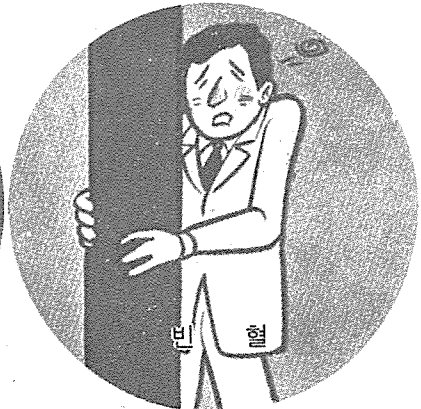
한편 전국민에 대한 역학조사도 1971년부터 5년간격으로 장내 기생충검사를 실시하여 왔는데 회충감염의 경우를 보면은 1971년에 54.9%에서 1976년에 41.0% 그리고 1981년에는 13.0%로서 학생집단의 저하와 비례하여 감소된 것을 볼 수 있었다.

## 최근에는 미국 대부분지역, 회충없어

이같은 현상을 다른 나라의 경우와 비교할 때 일본에서도 1949년에는 회충감염율이 62.9%까지 증가하였던 것이 집단관리의 성공으로 1979년에는 0.1%라는 놀라운 효과를 보여 주었다.

자유중국에서도 우리 나라같은 집단관리의 결과로 국민학생에서 회충 감염율이 1976년에 약 7%이던 것이 1979년에는 2%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방에 따라서는 아직도 1980년도에의 조사로 회충감염율 25%라는 지역도 남아있다고 한다.

그이외의 동남아 여러 나라의 현실을 보면은 회충감염의 경우, 말레이시아가 1980년에 13.9%, 태이가 1973년에 49.2%, 버올민의 어떤 지역은 1981년에 74.7%, 인도네시아의 1979년 성적이 73.9%, 네팔의 1981년에 84.3%, 스리랑카는 1981년에 79.8%, 그리고 방글라데시는 1980년 조사에서 81.1%라는



매우 높은 감염율을 나타낸 것을 볼 수 있다.

미국에 있어서도 1963년도에는 일부지방에서 회충감염율이 64%였었다는 기록이 있고 또 1974년도에는 일부지역은 29.4%를 나타낸 적도 있었으나 이들 지역도 집단구충이나 환경개선 및 보건 교육 등으로 11%로 저하되었다고 한다.

최근에는 미국의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회충감염을 볼 수 없고 단지 동남부 일부지역에서 아직도 20%의 감염율을 보이는 곳이 있기 때문에 전국적성적이 4% 정도로 알려졌다.

그외의 중남미지역은 아직도 45% 정도라고 한다. 아프리카 지역은 이집트가 국민학생에서 29.3%이었고 또 탄자니아의 북부지방이 도시에서 26.0%, 산악

## 계몽 통한 개인위생철저, 감염경로 차단

지방은 65.2%, 그리고 미취학아동이 53% 등의 회충양성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유럽지역은 회충감염율이 비교적 낮아서 영국, 스웨덴, 노르웨이 등의 북부지역은 매우 낮으나 남부유럽의 일부지역은 아직 비교적 높은 곳도 있다고 한다. 그의 중동지역도 일부 농촌지역에서 1977년도의 회충감염율이 90%내외를 보이는 곳이 있다고 한다.

이같이 아직도 전세계적으로 회충감염율이 높아서 일차적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과 관리에 부심하고 있는 실정이다.

회충이외에도 각종 장내기생충은 그 감염율이 높아서 우리 나라의 경우 편충감염은 회충보다도 높아서 1981년도의 성적에서도 회충의 13.0%보다 두 배가 높은 29.4%이었다. 1981년도의 연충란전체의 감염율은 41.1%로서 국민의 거



의 반수에 가까운 층이 무엇인가 장내에 기생충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이같은 기생충을 몰아내기 위한 방안으로 현재 추천되는 방법으로는 집단구충, 환경개선 및 보건교육을 들 수 있는데 그중 집단구충은 인체내에서 기생충을 몰아내므로서 개인적으로는 치료효과가 있고 집단에서는 감염원이 감소되는 결과 총란배출이 줄어서 환경오염을 방지하게 된다.

한편 환경개선이란 인분사용의 금지와 분변처리의 과학화 등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다. 또한 보건교육은 현재 기생충감염현황이라던가 기생충의 생활사, 나아가서 예방방법등에 대한 계몽을 통해서 개인위생의 철저를 기하고 감염경로를 차단한다는 것이다.

## 충난양성율 1~3월, 7~9월에 높다.

그러나 실제문제에 있어서 가장 손쉬운 방법은 구충에 의한 것이다. 여기에 가장 효과적인 시기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우리 나라에서의 회충감염의 양상을 월별로 조사한 성적에 의하면 충란양성율이 1~3월, 그리고 7~9월에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을 보고하고 있다. 이같은 현상에 대해서 봄에는 바람에 의한 충란의 확산과 이로 인한 감염율증가를 생각할 수 있고, 가을에는 야채 특히 김장때에 높은 감염이 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할 수 있으나 아직 확실한 원인은 규명중에 있다. 이같은 현상에 따라서 구충의 적절한 시기란 기생충감염이 최고에 달하였을 시기에 실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 확실하다.

그런데 구충제선택에 있어서 과거에는 산토닌, 해인초, 헥시레롤치놀, 피페라진제제 등이 많이 사용되어 왔는데 이들은 여러 가지 부작용의 위험성과 복용에 있어서의 불편한 점 그리고 타제사용 등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다행히 최근에는 보다 정확하고 부작용의 걱정이 없고, 또 여러 가지 장내 기생충이 한꺼번에 구충되는 소위 광범위구충제의 출현으로 구충의 어려움이 떨어졌다 그렇다고 현재의 구충제가 모든 기생충에 100% 작용하고 사람에게 전연 무해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잘못이다.

아무리 좋은 구충제라 하더라도 기생충에만 100% 작용할리는 없기 때문이다. 또 최근의 양상은 도시와 농촌, 그리고 생활양식에 따른 감염상황도 차이가 많고 기생충종류도 다양하다는 느낌이 있다. 따라서 구충제 복용에 앞서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생충종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올바른 구충제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제 가을도 깊어가고 하늘이 높고 말이 살찌는 이 좋은 계절에 우리 모두가 기생충을 몰아내어 우리 건강을 지키는 것이 문화인의 첫째 조건이라고 확신한다. <필자=가톨릭의대 기생충학교수·의박>

가을은 驅虫의 계절  
너도 나도 검사받자

■ 한국 기생충 박멸협회

■ 한국 건강관리협회